

Sermon of the Week:

Saved Yet Ashamed: The Tragic End of Lot's Passive Faith

Passage: Genesis 19:1-8 (ESV)

Date: April 27, 2025

Pastor: Dongsuk Chung

This passage, which recounts the story of Abraham and his nephew Lot, serves as a solemn warning to believers. Lot had followed Abraham, who had received God's calling, as they left their homeland in Ur of the Chaldeans and arrived in Canaan. Under Abraham's faith, Lot became materially prosperous, but eventually, he chose worldly gain and parted ways with Abraham. In doing so, he left his place of faith. Though both Abraham and Lot started from the same point—as those who received salvation—their life's final destinations were vastly different.

The first difference is revealed through the location where each man was seated. Abraham sat at the entrance of his tent, while Lot sat at the gate of Sodom. This detail reflects their spiritual state. By dwelling in tents and sitting at the tent's entrance, Abraham showed that he did not consider this world his final home but lived as a sojourner, seeking the kingdom of heaven. Those who are born again belong to heaven and live to fulfill God's will on earth. Lot, on the other hand, sat at Sodom's gate, representing how he had become a recognized authority in that corrupt city. He regarded the world not as a temporary place to pass through, but as a place to settle, build, and accumulate worldly success.

Second, when Abraham welcomed the angels, they stayed with him and gave him the promise of a son—a covenantal blessing.

But in comparison, when the same angels came to Lot, they initially refused his hospitality and said they would spend the night in the open square, highlighting the spiritual distance between Lot and the Lord.

Third, God established Abraham as an intercessor. God revealed Himself to Abraham, fellowshiped with him, and spoke to him of important truths such as the destruction of Sodom. However, even though Lot welcomed the angels into his home, he became surrounded by the men of Sodom who sought to commit wicked acts, and he was driven to the desperate point of offering his own daughters. This shows that Lot had come to live a life tainted by the sins of Sodom.

In the end, Abraham was not concerned with owning a lot of things in the world but became a man who deeply examined his identity in God. What we try to display outwardly in the world—our possessions or achievements—is not our true self. Our true identity, as God's children, is this: "I am a child of God in whom the life of Jesus dwells." This became Abraham's sole purpose in life. Abraham valued God's blessing above anything else in the world, more than circumstances, wealth or his surroundings. Therefore, he was able to tell Lot, "If you go to the left, I will go to the right," because he had a faith that always chose God above all el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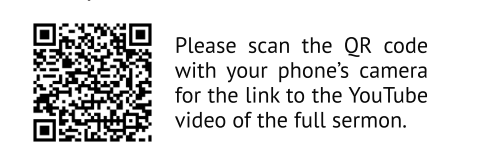
Moreover, Abraham lived in the presence of God and faithfully fulfilled his calling to intercede, always concerned with saving souls. Lot, however, as described in 1 Corinthians 3:15, was saved "as through fire"—a shameful salvation without reward. His descendants became the enemies of Israel: the Moabites and the Ammonites.

Though Lot was saved like Abraham, his end was shameful because his faith remained passive from beginning to end. He

only walked in faith when under Abraham's influence and never developed a deep,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Passive faith does not earnestly seek the Lord and, when faced with a choice between the spiritual and the material, always chooses the material. In contrast, those with active faith yearn for a deep relationship with God, and God is eager to reveal Himself to such people. To those who seek Him with all their heart, He manifests Himself and works powerfully through the Holy Spirit.

If we have been saved, we must put to death the hidden self—the soul. Unless the soul dies through the Spirit, we, too, will end up with a passive faith like Lot. The true battle is not outside of us; it is within. We must not waste time worrying over worldly matters and trying to resolve them by our own efforts; instead, we must devote our entire lives to the battle of putting our soul to death.

We are now living in the last days, like the days of Sodom's fiery judgment. In this time, we must have active faith, be continually sanctified, and prepare to meet the Lord. We should take to heart the warnings given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nd live a life where our spirit, soul, and body are governed under God's Word. As it is written in the Bible, "The kingdom of heaven suffers violence," we must actively go forth and claim what the Lord has already accomplished on the cross. Do not be deceived by the devil's words; rather, let us be believers who prepare our faith by rejoicing and holding onto hope in the Lord.



나성교회 연락처

+1 562-690-7979

<https://nasungchurch.net>

information@nasungchurch.net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삼성교회 연락처

+82 02-2293-4421

<http://samsungch.or.kr>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층 예배실

심니소식

54호

나성교회

NASUNGCHURCH.NET

ISSUE 54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19장 1-8절

날짜: 4월 27일, 2025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통해, 믿는 성도들에게 경고의 본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 집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라서 물질적으로 부요해지자, 롯은 결국 물질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위치에서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모두 구원받은 자로서 같은 출발점에 있었지만, 삶의 종착점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첫 번째 차이는 그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는가'에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문에 앉아 있었고,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살며 그 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이 땅을 목적지로 여기지 않고 나그네 길로 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늘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그 도성의 한 권위자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세상을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닌 정착해서 성을 쌓으며 으뜸이 되어야 할 곳으로 여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려 했을 때,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머물며 아들을 약속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롯에게는 처음에 거절하며 '경야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중

보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시고 교제하시며 소돔의 멸망과 같은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롯은 천사들을 집에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색 하려는 소돔의 무리에게 둘러싸였고, 급기야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소돔에서 최악에 물든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깊이 살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세우고자 하는 '나의 모습'은 나의 '소유'이지 나 '자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일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세상 환경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고 말한 것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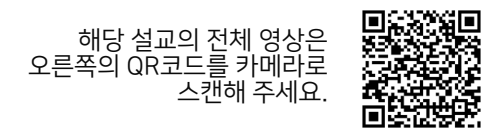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반면 롯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불 가운데서 얻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상급도 없었고, 그의 자손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이런 부끄러운 결과를 맞이한 이유는 그의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영향 아래 있을 때만 믿음으로 움직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없었습니다. 수동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영과 물질의 기로에서 항상 물질을 선택합니다. 반면, 능동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며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나타내기를

애쓰십니다. 마음으로 주님만을 향하며 찾는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나타나시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숨어있는 자아인 '혼'을 죽여야 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롯처럼 수동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진짜 전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세상 일로 염려하며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평생 힘을 다해 내 안의 혼을 죽이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소돔의 불심판과 같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능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화되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통치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것을 쳐들어가서 누려야 합니다. 마귀의 말에 속지 말고, 주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신앙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삼성교회 일정

◦ 5월 15일 경로야유회가 있습니다 (모세, 한나선교회).

◦ 5월 18일 전교인합동예배가 있습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중보기도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포항 등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담임목사님의 건강회복과 쾌유를 위해
- 강준규 형제 (제 4,5남선교회) - 눈 망막 수술을 하였습니다. 회복을 위해
- 이시용 장로 (모세회) - 담석으로 인해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 김폴리 자매 (제3여선교회) -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회) - 무릎 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과 건강을 위해
- 심순근 권사 (모세회) - 영과 육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 김영자 집사 (모세회) -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 양홍숙 권사 (모세회) - 신장질환과 심장이상의 합병증으로 요양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최지민 자매 (제1여선교회) - 유방암과 림프 전이가 되어 치료하는 중에 면역력이 떨어져 위와 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하여
- 한아림 자매 (청년회) -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으며 강건케 되기를 위하여
- 피터 송 집사 - 아들(폴 송)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직장도 구할 수 있도록
- 홍경아 - 한국에서의 생활 중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김옥경 집사 (82세) -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
- 김현숙 집사 (61세) -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심한 귀 통증이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
- 정신자 집사 - 자녀들 (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 권오중 집사 (47세) -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 장현주 집사 -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 한순희 집사 - 아들들(곽민준, 곽요한)에게 구원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 신 OO 집사 - 자녀(여고생)가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고발이 되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실명으로 기도 제목 올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송주석 형제 (청년) - 목 디스크 탈출로 인한 척수증 때문에 경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 김영희 자매 (60세, 도봉구역) - 궤양성대장염으로 20년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이번주 묵상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 (창세기 19장 1-8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2. 롯이 구원은 받았지만 비참한 결과를 맞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능동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호에 소개되었던 KM & EM 연합찬양팀 명단에서, 테너파트 명단을 정정합니다.
테너파트: 김희중, 홍성훈



선교소식

아래는 나성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 단체/선교사 명단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나성교회 KM

- Home Depot 사역 - 김학철 목사
- 물댄동산 (장애인 선교 단체)
- LA 거리 선교회 - 전예인 목사
- 멕시코 (엔세나다) - 임주영 목사
- 멕시코 (티후아나) - Carlos Chavez 목사
- Love Mexico - 박세목 장로
- Albania - 양은숙 선교사
- 중동 (이라크 & 요르단) - 구금성 선교사

나성교회 EM

- Cambodia (TASSEL) - Joji Tatsugi
- Indonesia - 3 missionary couples:
 - a. Ruth and Austin Kuklenski
 - b. Josiah and Sophie Glesener
 - c. Michael and Morgan LeBlanc

주간소식

- 오늘 2부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 금주 수요일부터 저녁예배 시간이 바뀝니다. 매주 7시부터 시작되었던 수요일 저녁예배 시간이 7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우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다음 주일에는 각 남녀선교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 다가오는 7월, 주일학교에서 VBS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오늘부터 등록이 시작됩니다.
 - 일정: 7/18 - 7/20 (금, 토, 일)
 - 신청 방법: 로비에 비치된 안내지와 신청서를 픽업하셔서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나소식 웹사이트

<https://samnanews.modoo.at>